

감사는 우리 가족의 영권입니다. (골로새서 2:6~7)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대개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만 권위를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법관의 권위는 검은색 가운이 아니라 법에 따른 명확하고도 균형 잡힌 판결에 있으며 의사의 권위는 흰 가운이 아니라 의학지식과 생명존중의식을 통한 환자를 치료하는 최선의 의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지녀야 할 진정한 영적 권위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 보기 원합니다.

1.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작성한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인간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을 받는 옥중의 생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전천후의 감사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영적 권위입니다. 바울의 영적 권위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소위 신유의 은사에 그의 본질적 영적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넘치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에 그의 영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매순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본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감사하는 자는 영적 삼중 무기로 무장합니다.

특히 바울은 감사하는 자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이유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와 연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이 강력한 영적 삼중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자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영적 무기로 무장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이 하늘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살림으로 덮여지고, 우리의 지성이 성령의 감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며, 우리의 육신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불잡히게 되어 우리 삶의 어떤 인생의 장벽도 넉넉히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3. 남아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칩니다.

「난 당신이 좋아」 책 저자의 아내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며, 3년 후에는 아내의 다리에 화상을 입어 한쪽 다리조차 절단합니다. 그는 아내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손가락과 눈썹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돌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며 마음이 참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음을 바라볼 때 감사와 행복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것의 소중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넘칩니다.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의 진정한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었다는 과거형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감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매 순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한 일이 더욱 생기는 감사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직분이나 옷 혹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넘치는 감사가 바로 우리 가족의 영적 권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감사 결핍의 인생에서 감사 충만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2021. 9. 21(화)

한국기독교신앙회 신암교회

2021년 추석에 드리는 감사예배

예식사 인도자

조상과 후손을 통해 생명과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올해도 우리 가족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 장 다 같이

1. 사랑하는 주님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본을받아 모든사람 내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 사랑하는 주님앞에 온갖충성 다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주님 거룩한손 제자들의 발을씻어
남섬기는 종의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3. 사랑하는 주님예수 같은주로 섬기나니
한피받아 한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주님 크신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공동기도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상가은(恩上加恩)의 축복으로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 가족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낭독 골로새서 2:6~7 말은이

-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 「감사는 우리 가족의 영권입니다.」 말은이 (순서지 4면 참조)

추모의 시간 다 같이 및 감사나눔

조상들의 역사와 신앙일화에 대한 회고를 나누거나
한 해를 지나며 감사한 일들을 돌아가며 짧게 이야기합니다.

찬송 559 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의기도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애찬과 교제 가족들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